

# 성격심리학 수업이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 The Effects of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격심리학 수업이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효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대상은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된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26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성격심리학 수업은 이론과 함께 학습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간단한 실습과 과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수업 사후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이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부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완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심리학 수업 수강 전에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을 중재 요인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수업 후 정서인식명확성 향상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의 핵심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emotional clarity 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and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2 college students who took a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as a liberal arts subject. The study was designed in the form of a pre-post test. The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was conducted as a simple practice and task to apply the contents learned with the theory to oneself. The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motional clarity of subjects. In addit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clarity didn't affect empathy before the course. After the course, emotional clar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In the analysis of sub-factors of rejection sensitivity, rejection anxiety partially mediated emotional clarity, affecting empathy, and acceptance expectation affected empathy by fully mediating emotional clarity.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cannot be used as mediating factor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empathy before taking the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but the study can improve empathy, the core of interpersonal ability.

**Keywords** :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Clarity, Empathy, Personality Psychology,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Ae-Ryoon Lim(Shinhan Univ.)

email: mfelim@hanmail.net

Received December 6, 2021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December 27, 2021

Published March 31, 2022

##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사회적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사회 분위기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및 인간관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관계에서의 어려운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교과과목으로의 심리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심리학방면 연구뿐 아니라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내면의 문제와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2]. 거부민감성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를 예상하여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며, 타인이 거부한다는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여 불명료한 신호까지 거부로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3]. 거부 경험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서적 불편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4]. 정서조절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고[5] 실제 거부 상황에서 방어 기제로 정서적 무감각을 사용하게 되어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왜곡하거나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의 인지적 공감능력 저해 현상이 발생한다[6]. 다시 말해,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내적 정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원활한 사회적 적응과 불안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부민감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심리적 변인으로[7], 거부민감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

한편, 대학생들은 사회 진입을 준비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 행동발달에는 공감능력이 주요 변인으로 간주된다[8]. 공감능력이란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서[9],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에 기반한다[10]. OECD에서 제시한 Skills for 2030[11]에서도 공감능력은 향후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혼재되는 수업현장, 일터 등지에서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고, 미래학자인 Daniel Pink[12] 역시 미래사회에는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예측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

뇌 위주의 학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특히 심리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공감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3].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현재의 신체 상태나 사고, 감정으로부터 자신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14],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과민하게 하여 자신의 정서를 확인하거나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15]. 낮은 정서인식명확성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이 미숙함으로 인해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16]. 즉,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다[17]. 또한 자신의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자신과 상대의 입장이 다름을 인식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18].

정서인식명확성 역시 후천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최은실과 방희정[19]은 기존 정서발달 프로그램의 한계를 분석하여 정서인식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임애련[20]은 이론과 실습 유형의 심리학 수업 모두 정서인식명확성을 향상시킴을 검증하였다.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된 거부민감성[21], 정서인식명확성[19,20], 공감능력[13] 간에는 영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공감능력에는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인재와 양남미[21]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지은과 박성욱[22]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은 상대가 경험하는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23]. 즉, 거부민감성은 공감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정소현과 양남미[24]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지 않으려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짐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심리학 관련 수업은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 가설 2.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 가설 3. 성격심리학 수업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가설 4. 성격심리학 수업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공감능력, 정서인식명확성 간의 관계를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2021년 1학기에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수업 1주차와 14주차에 각각 사전과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전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었다. 수집한 자료는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로 암호를 설정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요청 시 해당 데이터는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년은 1학년 79명(30.2%), 2학년 76명(29.0%), 3학년 55명

(21.0%), 4학년 52명(19.8%)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자 92명(35.1%), 여자 170명(64.9%)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55명(21.0%), 글로벌비즈니스대학 66명(25.2%), 바이오생태보건대학 68명(26.0%), 과학기술융합대학 17명(6.5%), 디자인예술대학 56명(21.4%)으로 나타났다.

### 2.2 연구도구

#### 2.2.1 성격심리학 수업

성격심리학 수업은 총 15주 중 시험 일정을 제외하여 13주 동안 진행되었다. 최초 1주, 7주, 14주차는 공지와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온라인 대면 강의로 진행하였고, 2~6주, 9~13주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였다. 시험은 8주, 15주차에 실시하였다.

성격심리학 수업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기초적인 성격심리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간단한 과제를 매 주차 강의 후 제시하였다. 과제는 해당 주차의 주제와 관련하여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애착 유형은?’, ‘나의 인정 욕구는 어떠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특성을 통한 페르소나와 그림자 찾기’ 등으로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수강생이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교수자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호작용하였다. 이는 이론에 대해 수강생 개인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재질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y	N	%
Grade	1st grade	79	30.2
	2nd grade	76	29.0
	3rd grade	55	21.0
	4th grade	52	19.8
Gender	Male	92	35.1
	Female	170	64.9
Major	Social Sciences	55	21.0
	Global Business	66	25.2
	Biotechnology and Health	68	26.0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17	6.5
	Design and Art	56	21.4

Table 2. Curriculum and theory

Curriculum	Theory
What is positive psychology?	Martin Seligman's Positive psychology
My personality is inherited from my parents	Bowlby's Attachment theory
I can analyze my thoughts	Freud's Psychoanalysis
I have a weapon to protect me	Anna Freud's Defense mechanisms
Childhood determines my personality	Eri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al theory
Personality is a combination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llport & Eysenck's Personality trait theory
I need a persona	Jung's Analytical psychology
I seek superiority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Judge from my point of view	Rogers's Person-centered Therapy
Fear of freedom	Fromm's Social psychology

주차별 커리큘럼으로는 ‘긍정심리학이란?(Seligman의 긍정심리학)’, ‘나의 성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Bowlby 애착이론)’, ‘나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다(Freud의 정신분석이론)’, ‘나는 나를 지킬 무기를 가지고 있다(Anna Freud의 방어기제)’, ‘어린 시절이 나의 성격을 좌우한다(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성격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물이다(Allport, Eysenck의 특질이론)’, ‘나는 가면이 필요하다(Jung의 분석심리학)’, ‘나는 우월함을 추구한다(Adler의 개인심리학)’, ‘나의 관점으로 판단한다(Rogers의 사람중심이론)’, ‘자유로부터의 도피(Erich Fromm의 사회심리학)’ 등을 진행하였다.

### 2.2.2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 & Feldman[15]이 개발하고 이복동[25]이 사용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거부불안, 수용기대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마다 불안과 기대를 각각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6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양극단 쪽으로 응답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편향이 우려되어[26]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거부불안 0.925, 수용기대 0.887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 2.2.3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27]가 개발하고 박성희[28]가 번역한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척도를 이용하였다. 공감능력은 총 28문항으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상정되었다. 공감능력의 구성요인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으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공감으로 묶을 수 있다. 공감능력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관점 취하기 0.767, 상상하기 0.767, 공감적 관심 0.781, 개인적 고통 0.780으로 모든 요인이 0.767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 2.2.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29]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30]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 문항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서인식 명확성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평소에 스스로의 정서를 인지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653으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의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을 비교하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Baron & Kenny[31]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전, 사후 각각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 사후 비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에 대한 성격심리학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t=-3.096, p<.01$ ).

Table 3. The Effects of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on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in College Students

Variables	Period	M±SD	t	p
Rejection sensitivity	Pre	2.37±0.58	1.254	.211
	Post	2.29±0.61		
Anxious expectation	Pre	2.40±0.76	1.016	.310
	Post	2.32±0.84		
Acceptance expectation	Pre	3.67±0.51	-1.291	.198
	Post	3.73±0.54		
Emotional clarity	Pre	3.45±0.42	-3.096**	.002
	Post	3.58±0.45		
Empathy	Pre	3.63±0.37	-1.803	.072
	Post	3.69±0.39		

\*\*  $p<.01$

### 3.2 거부민감성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사전과 사후 모두 독립변수인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단계에서 사전·사후 모두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사후에 매개변수인 정서인식명확성이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 비일관적 매개 모형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성격심리학 수업이 진행된 사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Step	Period	B	$\beta$	t	F (R2)
RS→EP	Pre	0.020	0.032	0.517	0.267 (0.001)
	Post	-0.026	-0.040	-0.527	0.278 (0.002)
RS→EC	Pre	-0.350	-0.477	-8.761***	76.750*** (0.228)
	Post	-0.395	-0.539	-8.379***	70.202*** (0.291)
RS+ EC→ EP	Pre	0.027	0.043	0.608	0.186 (0.001)
		0.020	0.023	0.325	0.186 (0.001)
	Post	0.073	0.112	1.269	5.254** (0.058)
		0.250	0.283	3.196**	5.254** (0.058)

\*  $p < .05$ , \*\*  $p < .01$ , \*\*\*  $p < .001$   
RS: Rejection sensitivity, EP: Empathy, EC: Emotional clarity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거부불안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거부불안은 사전·사후 모두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후의 경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에는 거부불안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는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부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between Anxious Expectation and Empathy

Step	Period	B	$\beta$	t	F (R2)
AnE→ EP	Pre	0.041	0.086	1.390	1.933 (0.007)
	Post	0.016	0.034	0.439	0.193 (0.001)
AnE→ EC	Pre	-0.240	0.433	-7.738***	59.874*** (0.187)
	Post	-0.260	-0.492	-7.383***	54.509*** (0.242)
AnE+ EC→ EP	Pre	0.051	0.107	1.559	1.217 (0.009)
		0.042	0.049	0.710	1.217 (0.009)
	Post	0.088	0.188	2.223*	7.006** (0.076)
		0.278	0.315	3.716***	7.006** (0.076)

\*  $p < .05$ , \*\*  $p < .01$ , \*\*\*  $p < .001$   
AnE: Anxious expectation, EP: Empathy, EC: Emotional clarity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수용기대가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수용기대는 사전·사후 모두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후의 경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에는 수용기대가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는 수용기대가 정서인식명확성을 완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6.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between Acceptance Expectation and Empathy

Step	Period	B	$\beta$	t	F (R2)
AcE→ EP	Pre	0.040	0.056	0.902	0.814 (0.003)
	Post	0.106	0.144	1.904	3.626 (0.021)
AcE→ EC	Pre	0.360	0.434	7.767***	60.322*** (0.188)
	Post	0.377	0.453	6.647***	44.181*** (0.205)
AcE+ EC→ EP	Pre	0.048	0.068	0.981	0.482 (0.004)
		-0.023	-0.027	-0.391	0.482 (0.004)
	Post	0.040	0.055	0.653	4.631* (0.052)
		0.175	0.197	2.354*	4.631* (0.052)

\*  $p < .05$ , \*\*  $p < .01$ , \*\*\*  $p < .001$   
AcE: Acceptance expectation, EP: Empathy, EC: Emotional clarity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교양교과목으로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1주차 수업 후와 14주차 수업 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Baron & Kenny[31]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신아영, 김정호, 김미리혜[32]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명상과 같은 정서에 집중한 프로그램 외에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거부민감성, 수용기대,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부민감성은 애착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33], 오랜 시간 형성된 애착관계는 단기간의 이론과 과제를 통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공감능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는 김유라 외[34]와 임애련[20]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격심리학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이 향상되면 부정적인 정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함양되며[35,36] 자신과 타인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8]. 즉,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을 때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하여 정서인식명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내재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격심리학 수업 사후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이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서인식명확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전 분석에서는 거부불안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격심리학 수업 사후에는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부분 매개하여 공감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정서 인식이 불안정한 성격 특성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37].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용기대 또한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에는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완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기대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38], 대인관계능력은 공감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39]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수용기대와 공감능력 간의 관계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성격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은 인간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이론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 발달하고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성격과 심리학을 이론적·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을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향적·소극적 성격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여 자신의 성격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도 거부감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해 향상된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이 거부민감성에 내재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어함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을 시사하였다. 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화되는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으로 꼽히는 공감능력을[40]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성격심리학 수업의 사전에 비해 사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정서인식명확성이 향상되면서 거부민감성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해졌다는 결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학 신입생들에게서 대인관계문제는 과거에 비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1].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사회성과 관련된 공감능력이 향상되며, 거부민감성이 완화되어 타인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교양 교과목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향상시킨다면 대학생에게 중요한 문제인 대인관계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토론식 수업,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이용한 실습과정을 도입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거부민감성을 측정할 때, 응답자들의 응답이 편향되지 않도록 5점 척도로 수정하였는데, 최초 설계된 6점 척도는 응답자의 태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는 거부민감성을 연구 하면서 6점 척도를 사용한다면 보다 명확히 구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Eduinside, Reflecting the unstable social phenomenon?... Increased interest in 'Psychology', a counseling-related major [Internet]. Eduinside, [cited 2021 sep 30], Available From: <http://www.edu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9399> (accessed Nov, 26, 2021)
- [2] E. K. Park, H. Y. Seon,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4, pp. 735-754,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21.1>
- [3] M. J. Park, N. M. Yang,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9, no. 1, pp. 103-127, 2017.  
DOI: <https://doi.org/10.23844/kjcp.2017.02.29.1.103>
- [4] K. Staebler, E. Helbing, C. Rosenbach, & B. Renneberg,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vol. 18, no. 4, pp. 275-283, 2011.  
DOI: <https://doi.org/10.1002/cpp.705>
- [5] W. R. Park, S. H. Hong, "Exploration of the Path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to Relational Aggression: A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Jealousy and Envy",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4, no. 1, pp. 1-23, 2015.
- [6] S. H. Lee, S. H. Son,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Intimacy,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on Dating Relationship Control in Wome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Education and Research*, vol. 1, no. 1, pp. 61-66, 2016.  
DOI: <https://doi.org/10.21742/ijaner.2016.1.1.11>
- [7] S. H. Hong, K.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Vost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4, no. 2, pp. 283-315, 2013.
- [8] K. A. Jung, B. H. Kim, "Adult Attachment, Empathic 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31, no. 1, 2010.
- [9] D. Rogers, C. Hudson, "The role of emotion control and emotional rumination in stress management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2, No. 3, pp. 119-132, 1995.  
DOI: <https://doi.org/10.1007/BF01740298>
- [10] B. Penprase, B. Oakley, R. Temes, and D. Driscoll, "Empathy as determining factor for nursing career selec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52, no. 4, pp. 192-197, 2013.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30314-02>
- [11] OECD,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2019.
- [12] D. Pink, "A Whole New Mind", Riverhead Books, New York, pp. 177-184, 2006.
- [13] A. R. Lim, "Study of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and Maj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9, pp. 103-110,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9.103>
- [14] M. A. Brackett, P. N. Lopes, Z. Ivcevic, J. D. Mayer, P. Salovey, P, "Integrating emotion and cognition: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Motivation, Emotion, and Cognition*, Routledge, London, pp. 189-208.
- [15] G. Downey, S. I.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6, p. 1327, 1996.
- [16]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No.3, pp.185-211, March 1990.  
DOI: <https://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17] N. E. Lee, Y. K.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unselor Development Level, Emotional Clarity, Self-compassion, and Empathy Abil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 11, no. 2, pp. 245-263, 2019.  
DOI: <https://doi.org/10.35185/KJET.11.2.6>
- [18] H. K. Lee, J. H. Kim, "Effects of Role Taking on Empath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3, no. 1, pp. 15-29, 2001.
- [19] E. S. Choi, H. J. Bang,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6, no. 1, 2013.
- [20] A. R. Lim,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according to

- Psychology Course in Liberal Arts University Co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9, pp. 256-26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9.256>
- [21] I. J. Lee, N. M. Yang,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or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3, no. 1, pp. 179-198, 2015.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5.23.1.009>
- [22] J. E. Yu, S. O. Park, "The Effect of Sensitivity to Rejec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s the Mediato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5, pp. 815-830, 2017.  
DOI: <https://doi.org/10.22143/HSS21.8.5.46>
- [23] W. J.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5, pp. 201-222, 2016.  
DOI: <https://doi.org/10.15703/kjc.17.5.201610.201>
- [24] S. H. Jeong, N M.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ilencing and Emotional Cla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9, no. 5, pp. 137-159, 2018.  
DOI: <https://doi.org/10.15703/kjc.19.5.201810.137>
- [25] B. D. Lee, "Adult attachment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ribution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0.
- [26] J. E. Shin, M. J. Jeong, S. H. Lee, "A Study on Response Trends in responding rating questions", Statistical research, vol. 13, no. 1, pp. 48-65, 2008.
- [27]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1, pp. 113, 198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28] S.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onent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5, no. 5, pp. 143-166, 1996.
- [29] P. Salovey, J. D. Mayer, S. L. Goldman, C. Turvey, T. P. Palfai,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 health, pp. 125-154, 1995.  
DOI: <https://dx.doi.org/10.1037/10182-006>
- [30] S. J. Lee, H. K. Lee,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 The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1, no. 1, pp. 95-116, May 1997.
- [31]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 1173,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2] A. Y. Shin, J. H. Kim, M. R. H. Kim, "Effectiveness of Emotion-Mindfulness on Emotional Clarity, Regulation of Emotion, Stress and Well-Being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5, no. 4, pp. 635-652, 2010.  
DOI: <https://dx.doi.org/10.17315/kjhp.2010.15.4.004>
- [33] A. Erozkhan,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 gender, and parenting sty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7, no. 1, pp. 1-14, 2009.
- [34] Y. R. Kim, Y. H. Lee, W. K. Park, H. J.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Art-applied Medical Humanities Instruction on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5, pp. 2889-2900,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8.5.46>
- [35] K. O. Park, K. H. Park,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nsity,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Interpersonal Relations", Catholic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3, pp. 77-95, 2007.
- [36] S. J. Lee, M. H. Hyun, "The influence of Emotional Awareness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to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3, no. 4, pp. 887-905, 2008.  
DOI: <https://dx.doi.org/10.17315/kjhp.2008.13.4.004>
- [37] H. K. Kim, H. S. Sim, D. H.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in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Gestalt Counseling, vol. 2, no. 2, pp. 1-21, 2012.
- [38] H. N. Choi, M. A. Seo,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2, no. 1, pp. 23-60, 2019.  
DOI: <https://dx.doi.org/10.31625/issdoi.2019.22.1.23>
- [39]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 85, 1980.
- [40] S. H. Konrath, E. H. O'Brien, C. Hsing, "Changes in dispositional empathy in American college students over time: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5, no. 2, pp. 180-198, 2011.  
DOI: <https://doi.org/10.1177%2F1088868310377395>
- [41] Y. E. Cha,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freshman, Sogang University, 2015", Sogang Counseling Research, vol. 8, pp. 69-98, 2015.



임 애 련(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3년 ~ 2018년 3월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조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